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 2017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 개최 어업유형별 2개소씩 총 8개소 본선 진출



우수공동체 선정대회에 참가할 공동체 선정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9월 중순 현지 점검단을 편성,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연천 내수면공동체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수산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추진한 각 공동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공동체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천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점검 절차를 거쳐 선정대회(본선) 참가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대회(본선) 진출 공동체는 어업유형별(어선, 양식, 복합, 내수면, 마을) 2개소씩 총 8개소이며, 어업유형별 최우수, 우수공동체를 선정

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한편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는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에 따라 짝수연도에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홀수연도에는 '우수공동체 선정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제3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10월 23일~27일, 대만에서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타이페이, 지룽)의 수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2017년 제3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만 연수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구성원 12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는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3차에 걸쳐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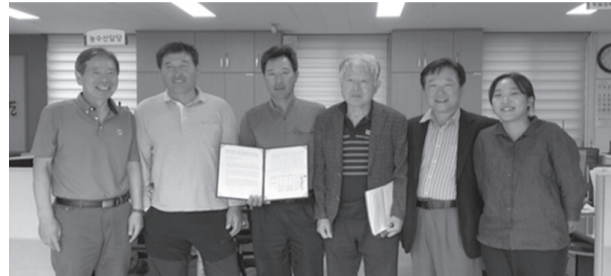
제8회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10월 20일 남해군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

경남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가 경남 관내 공동체 어업인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 20일 남해군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경남도 한마음

대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업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도 단위행사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다. 자율관리어업 경남도연합회(회장 이기진)가 주최하고, 하동군연합회(회장 김중선)가 주관한다.

한국수산업회,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조정

전남 완도 약산 화가·여동어촌계 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 해소



한국수산업회 자율조정협의회의 조정으로 어촌계간 지선 경계선 확정에 합의하고, 분쟁 당사자인 화가 및 여동어촌계장이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산업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전남 완도 약산 화가·여동어촌계간 매생이 양식지 조업분쟁을 해소했다.

오랫동안 유류지로 방치되었던 갯벌 간석지가 새로운 소득품종인 지주식 매생이 양식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촌계간의 분쟁으로,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들이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

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조정을 벌인 결과 새로운 어촌계간 관할수역경계선(지선경계선)을 확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해묵은 조업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분쟁당사자인 화가어촌계(계장 오정남)와 여동어촌계(계장 하영운)는 지난 9월 15일 한국수산업회 분쟁조정위원 및 완도 약산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분쟁조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인천 신불공동체, 화성 백미리공동체 방문 현장교육 경북지역 3개 공동체는 울산 주전공동체에서



인천 신불공동체 회원 30여 명이 9월 3일 화성 백미리공동체를 방문하여 현장 교육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공한 공동체를 방문·견학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이 지난 9월 13일 경기도 화성 백미리공동체에서 열렸다. 이날 인천 시 신불공동체 회원 30여 명은 경기도

의 대표적인 모범공동체인 백미리공동체를 방문, 공동체 활동상을 견학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어 경북 오도1리·정지성구획어업·

강사2리공동체 등 3개 공동체 3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9월 22~23일 울산 주전공동체를 방문, 강원보 위원장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자율관리어업 현장을 견학했다.

자율관리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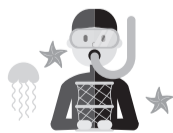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www.jayul.go.kr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담이 등으로 수산자원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통영시 자율관리연합회,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 33개 공동체 참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개



통영시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9월 20일 관내 33개 공동체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회장 이기만)는 9월 20일 통영시 용남면 율포마을, 신거제대교 밑 해안변에서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바다정화 활동에는 통영시연합회 소속 공동체 33개소, 통영수협, 통영시청, 수산기술사업소, 컨설턴트 등 150여 명이 참가하고 선박 2척을

동원해 해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 폐부이 30망(4톤), 기타 쓰레기 200자루(6톤)를 수거했다.

통영시 자율관리연합회 이기만 회장은 “수산업은 바다 환경 보호가 기반이 되어 하며, 오늘과 같은 대대적인 해안정화는 매년 필요 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전국 첫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운영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촌 공공일자리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군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22명의 도우미는 전남 공동체를 지정받아 어촌공동체의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어촌 체험 프로그램과 어업인 선진교육 운영 업무를 맡는다. 선정된 도우미는 어촌 이해도가 높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수산 분야 경력자가 대부분이다.

전남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면서 사업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308개 공동체에 2만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 어장 휴어기, 자원조성, 해양쓰레기 수거 등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 9월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호연)는 9월 7일 충북 오송 연합회

사무실에서 9월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연합회 이사 11명을 비롯,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날 연합회 이사들은 공동체 구성요건 강화, 공동체 현장교육 확대, 낚시어업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대청호 일원에서 토종붕어 치어 100만 마리 방류 충북 옥천군, 관내 3개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와 협조



9월 11일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대청호 일원에서 김영만 옥천군수와 내수면공동체 회원들이 어린 토종붕어를 방류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풍부한 어족자원 형성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9월 11일 대청호와 금강 유역에 총 100만 마리의 어린 토종붕어를 방류했다.

군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단체(향수, 대청호, 금강다슬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월 7일과 8일에 이어 실시한

이날 방류는 안내면 인포리와 옥천읍 수북리 대청호 일대와 동이면 적하리, 이원면 용방리 금강 유역 등 총 4개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로부터 공급 받은 치어를 3개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4개월에 걸쳐 길이 4cm 이상으로 키운 것이다.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자원관리 및 수산물 생산·유통 현장 등 견학

금년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의 수산선진국인 노르웨이(오슬로, 베르겐 등)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우수공동체 구성원 11명을 비롯, 해수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을 경유, 오슬로 국제공항에 도착해 다음 날 노르웨이 무역산업수산부 방문으로 연수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2명의 수산담당 공무원이 나와 노르웨이의 수산현황을 비롯, 어선어업 제도 및 양식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노르웨이는 선박 및 개인별 할당제를 도입해 어획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 및 휴어기 실업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주요 양식품종은 연어와 송어이며, 무엇보다 양식장 환경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식장은 수질 등 환경상태를 감안, 상중하로 구분해 관리하고, 하등



연수단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노르웨이 연어양식 현장을 방문, 견학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수단이 노르웨이 무역산업수산부를 방문, 수산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급을 받으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휴어를 해야 한다. 양식장의 적정 생산



노르웨이 베르겐에 위치한 연어양식장 모습.

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생산량을 할당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수산자원을 전 국민의 공유재산 개념으로 인식하고, 어획물 소득에 대한 세금을 수산회사뿐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어 베르겐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회사, 베르겐 북쪽 해안의 연어·송어 양식장, 노르웨이 청어협회, 노르웨이 수산위원회 등 주요 수산 관련 현장을 둘러봤다.

한편 연수에 참가한 어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노르웨이 연수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며, 비록 우리와 어업여건이 다르지만 정부와 단체, 어업인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바다 환경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식생산물을 비롯한 모든 어획물이 전자경매를 통해 판매됨으로써 생산통계 및 가격 질서가 잘 잡혀있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프로젝트’, 어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난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는 어업인 대표와 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 발대식이 거행됐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촌의 경쟁력을 기르고 어촌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어촌마을 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김영춘 장관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으며, 전국 2,000여 개 어촌계에 소속된 13만 어업인, 정부와 민간 재능기부팀, 관련 분야 석학들이 힘을 모아 바다사랑 릴레이에 동참하게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섬과 어촌, 항포구 등을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세심하게 정비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사랑스러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어촌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어촌 환경정화 운동인 것이다.

정부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어항과 항포구 설계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여기에 민간 재능기부팀

과 유관기관이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를 함께 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어촌에서의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의 프로젝트 추진은 단기와 중장기로 전략을 나눠 설정됐다. 단기실행 계획은 금년 말까지 어촌주민 자율주도형 바닷가 환경정화 운동(Boom-up)과 지자체 및 민간 재능기부팀 활용, 환경개선 우수사례 확산 및 포상 실시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다환경개선, 국민동참 유도 필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장관이 직접 나서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면서, 겉으로는 거창한 새로운 사업처럼



탁희엽
한국수산경제신문
편집국장

보이지만 실상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어장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자율관리어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광범위하고 지자체를 포함해 민간 재능기부자까지 참여하는 등 규모가 달라졌을 뿐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자율관리어업은 전국 1,159 개소의 공동체가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인원만도 7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정책이 실시된 지 17년째를 넘어서면서 양적 성장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산적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은 바다 이용의 주체인 어업인이 스스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만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프로젝트’는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도

약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어업인 주도 수산자원 관리체계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붐을 조성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촌 공공일자리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를 운영키로 했다. 전북 고창군은 바다를 잘 지키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으로 국가정책에 맞는 성공 어촌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된 규모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들까지 바다 살리기에 동참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의 시작이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되는 수직적 개념에서 정책 수요자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전환된 것이며,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도 어업인의 참여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촌과 바다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어촌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과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수부,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 서비스 본격 시작



앞으로 어선을 거래할 때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최근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어선거래가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져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귀어인의 경우 어선 구매에 곤란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했고, 이에 근거해 어선거래전용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개통하게 됐다.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선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판매 희망가격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공개하고, 사고자 하

는 사람은 어선 종류 및 희망가격을 입력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다.

이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확인한 어선중개업자가 양자와 접촉하여 거래를 중개한다.

어선거래시스템의 개통으로 거래가 양성화되어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어선을 거래하려면 대부분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으므로 어선 매도매수 및 중개의 공간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누리집을 통해 전국 단위의 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 효율성 및 선택의 폭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 개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춘덕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등 참석 내빈이 무대 위에서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행사를 갖고 있다.

제1회 한국여성어업인 전국대회가 ‘여성어업인, 수산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표어 아래 전국의 2,000여 여성어업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9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단위 여성어업인단체인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지난

해 말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전국대회이다.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찾아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뜻을 밝혔다.

한여련은 전국에 약 8,000여 명의 회원과 51개 분회를 두고 어촌에서의 교육사업, 도시어촌 간 교류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해 오고 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 해수부·지자체·유관기관등 참여 프로젝트 실시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어촌계 대표, 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프로젝트' 발대식을 가졌다.

취임 후 어촌체험마을을 찾은 김 장관은 어촌 경쟁력을 기르고 여름철뿐 아니라 사시사철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어촌마을 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먼저 어촌계 대표 등 어업인과 수협, 어촌어항협회,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올 연말까지 어촌어항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200개 어촌계와 시군 연안지자체 등을 선정해 어촌의 미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방치 폐어구와 쓰레기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회는 해양수산 신지식인의 우수 수산물을 자체 운영 중인 수산물 전문쇼핑몰 “피쉬세일”을 통해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산 관련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신지식인 수산물의 홍보·유통·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LA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립



지난 9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터콘티넨털 LA Downtown 호텔에서 열린 'LA수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KOTRA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9월 6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터콘티넨털 LA Downtown 호텔에서 열린 'LA수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도쿄에 이어 7번째로 개설되는 LA수출지원센터 설립으로 수협은 3대 국내 수산물수출국(日·中·美)에 모두 센터설립을 완료했다.

터콘티넨털 LA Downtown 호텔에서 'LA수출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를 비롯해 KOTRA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수산회-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산회와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는 수산단체간 화합과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9월 20일 양단체간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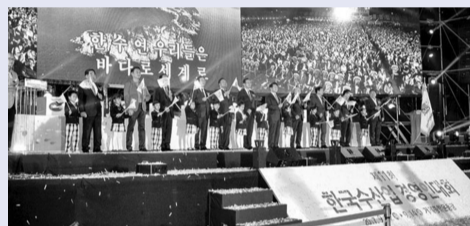
한국수산회(회장 김영규)와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회장 문승국)는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국수산회 회의실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수산 관련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신지식인 수산물의 홍보·유통·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회는 해양수산 신지식인의 우수 수산물을 자체 운영 중인 수산물 전문쇼핑몰 “피쉬세일”을 통해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수산 관련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신지식인 수산물의 홍보·유통·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11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9월 14일 거제시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제11회 수산업경영인 대회 개막식 모습.

제11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어업인이 행

복한 수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거제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해수부와 경남도(거제시), 수협중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수산업경영인 가족 등 1만여명이 참여, 수산업 성공사례 발표, 수산기자재 전시회, 치어 방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동체 탐방 / 전남 신안 안창 자율관리공동체

오지의 섬마을, 갯벌 낙지목장 조성사업으로 부촌의 꿈 키워



오병석 안창공동체 위원장

해변산중(海邊山中).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신안군 안창공동체 오병석(66) 위원장은 달리 내세울만한 관광자원도 없고, 어족자원도 변변찮은 오지의 고향 섬마을을 이렇게 표현했다. 목표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안좌도의 안창어촌계를 중심으로 인근 4개 어촌계원 40여 명이 지난 2011년 결성한 안창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전만 해도 130ha에 불과한 갯벌 마을어장을 천수답마냥 바라보며, 다만 낙지가 많이 잡혀주기를 소망하는 희망없는 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촌계의 젊음이(?)라고 할



안창공동체 어업인들의 낙지잡이 모습

만한 40~50대 어촌계원들이 주축이 돼 공동체를 결성한 이후 마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적극 실천하면서 2014년부터 낙지목장 조성사업을 추진, 그동안 맨손으로 잡기만 하던 낙지를 길러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기 때문이다.

낙지목장사업은 낙지부화장에서 산란기 암수 각각 1마리씩을 교접망에 넣어 5일 정도 교접시킨 후 암컷만 자체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산란장에 방류해 자원을 증강시키는 것.

어미낙지 1마리의 평균 산란량은 100마리 정도에 불과, 현재 마련돼 있는 소규모 낙지부화장에서는 연간



올해 수확을 앞두고 있는 수평걸이식 굴 양식장

5,000마리 정도의 어린낙지를 생산하는데 그쳐 내년엔 육성사업비로 연간 2만마리 규모의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갯벌의 일정부분을 지주 항목으로 구획하여, 일체의 낙지잡이를 금지하는 낙지목장 조성사업 규모를 2014년 4ha에서 2015년 12ha, 지난해에는 15ha로 늘리는 한편 낙지조업 금지기간(6월 21일~7월 20일)도 법정 금지기 이외에 1~2월 두 달간을 연장해 이곳에서는 총 3개월간 일체의 낙지잡이를 금지하는 등 자원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자원조성 노력에 힘입어 안창공동체의 낙지 생산량은 2014년 3만마리, 2015년 3만 8,000마리, 지난

해는 5만마리 수준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안군에서 안창공동체를 포함한 인근 2600여 ha의 갯벌에 올해부터 오는 '21년까지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낙지센터를 이곳에 시설키로 함에 따라 안창공동체는 우리나라 낙지목장의 중심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밖에 안창공동체는 올 연말 굴 수확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곳은 그동안 굴 양식을 하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2년에 걸쳐 수평걸이식 굴 양식장 50세트를 시설해 금년 11월 첫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평걸이 굴은 갯벌에서 노출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니 공동체의 어한기 소득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안창공동체 오병석 위원장은 “애써 낙지자원을 조성해 놓아도 갯벌에 물이 차면 인근 목포지역의 연승어선들이 하루에도 수십 척씩 몰려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없는 실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